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길의 한자어 '도(道)'는 '다니는 길'의 뜻 외에 '이치, 도리', '근본, 근원, 우주의 본체', '작용, 기능, 묘용' 그리고 '방법' 등의 많은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말의 '길'도 한자어 '도(道)'의 뜻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들을 표현해 일상에서 널리 소통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의미들이 중심 의미인 '다니는 길'에서부터 연상된다는 사실이다.

길(道) 위에서 가끔 망상이 아른거린다

처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동서 교역로로 자리를 잡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와 정치가 배경이 되어 형성된 독특한 길이지만 지금도 세계인들이 찾고 있다. '비단길'보다 먼저 왕래했다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차마고도'가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길게 연결된 7번 국도를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모두 '다니는 길'의 의미다.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길에 의해 왜곡된 분할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길은 육로만이 아니다. 바다는 물론이고 하늘까지 촘촘한 그물로 연결이 되었다. 제주 강정항도 바다를 통한 길의 확장인 셈이고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갈등인 제주 제2공항도 하늘길을 연결해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다. 길이 '작용, 기능, 묘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야 마다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치, 도리', '근본, 근원, 우주의 본체'와 닿아있다면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어디 쉬운가.

서울 개포동과 구룡마을은 양재대로에 의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는데 길에 의해 두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삶의 양상도 몹시 이질적이다. 서로를 바라보며 남쪽은 두려움을 느끼며 증오를 키울 수도 있고 북쪽은 무시와 멸시로 단절을 피할 수도 있다. 며칠 전 두조로(두모와 조수를 잇는) 수장동 근처에서 노루 한 마리가 찾길로 뛰어다니다가 사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말이 무색해졌다.

사설

JDC 진행 지역사회 공헌사업 반응 좋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문활용교육인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올해 첫선을 보인 '미디어 체험데이' 사업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 특취는 교육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와 함께하는 JDC 특 특취는 교육 특강'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꽤 높게 나왔다. 특강 당일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 지도 방법과 내용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72%가 '매우 그렇다', 22%가 '그렇다'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열린마당

생명 지키는 작은 실천, 119안심콜 서비스



강 혁 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119안심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서비스일 것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응급환자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자주 가는 병원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구급서비스이다.

가능하게 하는 소방 서비스이다.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다. 환자가 의식이 혼미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어 환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119안심콜 서비스 내 환자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적절한 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

뉴스-in

서귀포 문화도시 다양한 아이디어 '눈길'

“시민들 제안이 정책으로” 기상악화 안전사고 대비
○...올해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2022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시민대잔치'가 최근 마무리 된 가운데 '문화원탁'에서 도출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눈, 그 밖의 지역에 비·눈발이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운영하자

도내 쓰레기 처리난을 풀어줄 해법으로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 방안이 급부상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각 가정·업소의 감량 노력에 더해 재활용품 보상제로 자원순환 정책 효과가 의외로 크게 나타나면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재활용자원 회수 보상제는 날로 가중되는 쓰레기 처리난속에 참여 인원·수거량 등서 경이로울 만큼 기대 이상이다.

주변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재활용되고, 경제적 이득에도 도민들 의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며 '일석 삼사조' 효과다. 참여 인원도 시행 초기인 작년 5400여명에서 올해엔 10월까지 3만7000여명으로 급증, 폭발적 인기다.

부 고
국중선 어머니 김해김씨 복순 (향년 91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12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소(4층)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국중선 며느리 고순애
증명 김미정
중일 이은희
중관 신희경
딸 국현숙
명숙 사 위 전영곤
※ 연락처 : 국중선 010-3639-2304
국중명 010-2248-0209
국중일 010-5487-1717
국중관 010-2696-7163

부 고
송정수 아버지 여산송공 향능(前 교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13일 10시 1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오라2동 가족선영 납골당
부 인 현은자
아 들 송정수 며느리 정미란
정흠 오명애
손 자 송성민
승우
손 녀 송승현
민주
※ 연락처 : 송정수 010-2689-0319
송정흠 010-9661-2469

채권신고공고(청산) 2차
당 회사는 2022년 11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해산에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그 채권 액등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일
상그릴라비치 주식회사
220111-0105586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31
청산인 박명용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골요목
유 라 조 생 2~3년생
유 라 실 생 5년생
천 헤 향 3~5년생
황 금 향 3~5년생
한 라 동 임 3~6년생
남 진 해 3~4년생
성 전 은 주 3년생
하 레 조 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 지 평 3년생
진 지 향 3년생
탱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